

제46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4월 17~20일 개최

진도8미 김밥 만들기와 제빵 경연대회... 너살, 제이블랙 공연을 통해 축제의 밤 조성

진도군은 오는 4월 17일(금)부터 20일(월)까지 4일간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제46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도8미 쿠키쇼&베이킹쇼'와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린다. 진도의 대표 먹거리와 청소년 문화를 접목해 세대가 함께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8미 쿠키쇼'는 4월 18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흑백요리에 출연했던 안유성 명장이 진도의 풍부한 특산물을 활용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오감 만족형 미식 체험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밥 만들기 경연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베이킹쇼'는 다음 날인 4월 19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빵 경연대회가 열린다.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끼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4월 18일(토)에 진도읍 철마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상금은 총 600만 원 규모로 전국 청소년 댄스들이 참가하는 대형 경연대회다.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 참가팀은 4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선전을 치른 후, 오후 6시 30분부터 본선 무대를 펼친다.

본선에서는 가수 '너살'과 유명 댄서인

'제이블랙'의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젊은 세대와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밤을 만들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세계적인 자연현상에 진도의 맛과 청소년 문화 콘텐츠를 더해 더욱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전국의 젊은 세대가 함께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8미 김밥 만들기, 제빵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은 진도군 관광문화 누리집(https://www.jindo.go.kr/tour/main.c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나주 지식천 자전거길 개통

유채꽃, 갈대, 철새 어우러진 자연형 코스

전남 나주시가 지식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전면 개통하며 영상강과 연계한 광역 자전거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여가와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명품 라이딩 코스를 선보였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지식천 자전거길 나주 구간(산포~남평) 6.11km 조성 완료하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간 개통으로 광주~나주~화순을 잇는 지식천 자전거길이 하나로 연결되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총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영상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또 하나의 명품 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식천 자전거길은 유채꽃밭과 갈대밭, 철새 등 사계절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코스로 라이더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평읍 주요 상권을 지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개통식은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에 이어 자전거 시승 행사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시민들이 새롭게 조성된 자전거길을 직접 체험하며 개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영상강 자전거길 이용자들도 지식천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라이딩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식천 자전거길은 시민의 여가 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구례군, 관광굿즈·농특산물 판매장 '빙구레마켓' 개장

매주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전남 구례군이 지역 관광 굿즈와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판매장 '빙구레마켓'을 지난 3월 28일 개장했다.

구례군의 관문인 구례교 앞 '빙구레스테이션'에 동지를 틈 '빙구레마켓'은 지역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돕기 위해 구례군이 직영으로 운영한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군은 1차 공고를 통해 관광 굿즈 8개 업체와 농특산물 14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시범 운영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

문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등 뜨거운 호응을 확인했다.

이번 마켓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결실 중 하나다. 군은 지역 크리에이터 양성과 관광 굿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로컬 플래마켓인 '공장'과 '빙구레마켓'을 연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빙구레마켓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잇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판매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2차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빙구레마켓'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되며, 지역 로컬제품 판매와 함께 다양한 관광 정보도 제공해 구려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관광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곡성군, '기억꽃 피움터' 치유농업으로 치매환자 인지기력 강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4월 2일부터 9회차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이 지난 2일부터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억꽃 피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곡성군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추진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인지기능을 자극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은 곡성군치유농업센터와 결연 자연농기에서 진행되며, 경증치매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참여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측정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지기능 변화와 정서적 안정 정도를 분석하

고, 치유농업이 건강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텃밭 가꾸기, 실내 원예활동, 도예체험 등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농작물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식물을 활용한 감각 자극과 심리적 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손을 활용한 반복적이고 섬세한 작업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피해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062-525-9775

화순군, 우박·서리에도 봄꽃 축제 준비 차질 없이 진행

기상 변수 속 현장 대응 강화... 안정적인 개화 경관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화순 봄꽃 축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봄꽃야행"을 주제로, 벽라교에서 삼천교까지 이어지는 2.1km, 총 6ha 규모의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유채를 중심으로 다양한 봄꽃과 유림식 정원이 어우러진 경관이 낮과 밤에 걸쳐 연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오스테오스펠럼, 금어초, 크리산세뎀, 리나리아, 팬지, 비올라 등 20여 종 30만 본의 초화류와 꽃강길 유채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봄꽃 정원이 조성된다. 화순 봄꽃 축제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초화류를 함께 식재한 만큼, 개막 전까지 안정적인 생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개막을 열을 앞두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서리·우박 등 기상 변수가 발생하면서 초화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됐으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전반적인 꽃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꽃강길 일원에 식재된 초화류는 저온과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해 일시적인 기온 저하에도 생육 저하나 꽃잎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군은 서리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부직포를 활용한 보온·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 멋진 나를...
더 크게 웃을 것...
공적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면...
밋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새로운...
잠시...
평범한 것은...
가득한 사람...
이들...
우어도 보는 것...
가서...
우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